

[사회]

2007 전마과 트레드 L.O

④ 공부하는 학부모

‘엄마 선생님’... ‘아빠 선생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직접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대개 전·현직 교사나 학원 강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회사원 등 조금만 공부하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학부모들이다.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이 돈독해지고 대화도 늘어 효과도 만점이다.

돈주기·집안 청소하기 등을 맡고 내기 게임을 하면서 딸의 사고력이 쑥쑥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함을 느끼고 있다.

김씨의 남편 역시 매주 일요일에 1주일 분량의 신문 칼럼을 교재로 딸과 토론을 벌이며 딸의 논리력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씨의 남편은 인터넷 등을 통해 토론의 주제가 될 시사문제를 충분히 익히는 공부를 한 다음에 딸과 토론을 한다.

회사원 정모(44)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영어공부를 돕기 위해 대학 졸업 후 거의 20년 가까이 손을 놓다시피 했던 영어공부를 최근 시작했다. 정씨는 딸과 함께 각기 다른 영어소설을 1주일에 한 권씩 읽으며 딸의 영어단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공부모임도 인기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가 6번째 운영 중인 ‘참새영어’소모임. 영어 사교육비가 압축되지만 주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 회화 등 실제 생활에서 점차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졌다. 현재 회원은 50여명. 이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비디오·테이프 등 각종 영어교재를 공동구매해 돌려본다. 또 1주일 동안의 교육성과를 서로 이야기하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나 교재에 대해 모색하며 자녀의 영어실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이영선 사무국장은 “회원 자녀 중 상당수가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출 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며 “자녀 교육도 학부모 하기 나름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맨 처음에는 전직 교사 신분으로 집안에서 그냥 살림만 할 수 없어 두 딸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애들의 학습성향 향상은 물론 발달과의 유대 강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45)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사교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최근 숫자로 즐기는 두뇌 개발형 퍼즐 게임인 ‘네모로직’을 배웠다. 대학입시나 학교성적에서 날로 중요시되는 논술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논리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변의 권유 때문이었다. 김씨는 매일 30분씩 딸과 음

“내 아이 내가 직접 가르친다”

사교육비 줄이고 관계 돈독

광주 학부모 공부모임 인기

정씨는 수학 역시 매일 EBS방송을 보면서 직접 공부를 해가며 가르치고 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송원중 재단 편의로 이전해놓고 “스쿨버스비 내라니...”

학부모들 불만 잇따라

지난해 12월 말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서 남구 송하동으로 학교를 이전해 3월 신학기부터 송원중으로 통합 운영되는 송원중과 송원여중이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고심 중이다.

출신 초등학교 기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입학해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720여명의 거주지 광천동·송촌동·화정동·농성동·주월동·양동 일대여서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이 밝힌 학생 등교 교통수단은 스쿨버스 220여명, 시내버스·승용차 300여명, 도보나 자전거 200여명 등이다.

특히 기존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했던 학생들의 경우 통학거리가 4~5km 늘어 신학기부터는 스쿨버스나 시내버스 등을 이용해야 할 상황이 된다. 스쿨버스 이용료는 평소에는 분기당 7만~8만원, 방학이 끼여있는 분기에는 6만여원에 달한다.

부모의 승용차를 타고 등교했던 100여명의 학생 중 상당수도 등교노

선 변경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필요에 의해 학교를 옮긴 만큼 당연히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원중 1학년에 재학중인 김모군의 어머니(45·광주시 서구 광천동)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던 학교가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외지로 옮겨가 아이가 통학하는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더구나 학교 편익에 따라 학교를 이설해놓고 스쿨버스비 비용까지 학부모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도 학교 측에 스쿨버스 무료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스쿨버스비를 내야한다는 원칙이지만, 현재 스쿨버스 이용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장학·인사 업무 분리

광주교육청 조직 개편안

광주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과를 없애고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10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분청 교육국의 경우 기존에 초등과 중등의 장학·인사·학사 등을 각각 담당해 왔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폐지하고 장학과와 교원인사과를 신설, 업무를 통합했다. 장학과는 초·중등 장학, 특수·유아·인성교육 업무를, 교원인사과는 초·중등 인사, 고시 업무를 각각 맡도록 했다.

특히 교육정책과를 신설해 교육정

책개발, 국제·문화교육을 강화했다.

기획관리국은 혁신관리과·총무과·교육협력과·교육행정과·재정복지과·교육시설과 등으로 개편했다.

부교육감 직속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감사팀에 일반행정직 외에 교육전 전문성을 높였고, 반부패조사팀을 신설해 부패방지과 조사·처벌업무를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조직개편과정에서 분청과 직속기관 공무원 55명을 줄여 일선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된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식중독 현장 훼손판

과태료 100만원 부과

보건복지부는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그 현장을 훼손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을 입법에

고하고 올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중독, 또는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와 한의사는 물론 식중독 환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설립·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연합뉴스

여전한 동장군 1월 11일 (음 11월 23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and a map of Korea.

음주운전 늘고 마약사범 줄어

지난해 광주·전남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은 크게 증가한 반면 마약류 사범은 소폭 줄었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는 2천748건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 2천155건에 비해 27.5% 증가했다. 이 중 면허 취소 대상(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1천222건(44.5%)이었으며, 면허 정지 대상(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은 1천526건(55.5%)이었다.

재작년 12월과 비교하면 면허 취소 대상은 24.5%(241건), 면허 정지 대상은 29.9%(352건)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방경찰청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56건에 80명으로, 재작년 68건 85명에 비해 소폭 줄었다. 경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코카인·아편·헤로인 등 마약사범은 18건 22명, 히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30건 46명, 대마 사범은 8건 12명이었다.

재작년에 비해 마약사범은 21.4%, 히로폰 사범은 19.2% 줄어든 반면, 대마사범은 3배 증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녀 삼총사’ 김형은 끝내 숨져

개그우먼 김형은(사진)이 10일 새벽 1시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올해 만 스물여섯이었다.

지난해 12월16일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형은은 사고 후유증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2일 오전 6시. 고인의 시신은 화장된 후 경기도 고양시 청야공원에 안치된다.

김형은은 영동고속도로 속사나들목 부근에서 타고 가던 승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가드

레일을 들이받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1981년생인 김형은은 동국대 영화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우먼에 데뷔했다. 이후 장정희·심진화와 함께 SBS ‘웃음찾는 사람들’의 ‘미녀삼총사’ 코너를 통해 인기를 모았으며, 최근 ‘미녀삼총사’ 음반을 발표하고 가수활동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한의사들 “FTA 반대”

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한의사협회 회원 150명도 이날 오전 정부청사 앞에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벌였다.

동신대학교 한의대 학생 50여명이 10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FTA 협상 시 한의사 시장을 개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직원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 의료안내. A large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s in Gwangju, listing various hospitals and clinics with their specialties and contact information.